

“부활! 사실인가?”

고전 15:1-9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를 이야기 한다면 당연히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요 부활절은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죽음 즉 사망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은 물어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도 한결같이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불멸 사상은 그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이성적인 해답입니다만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 하셨어도 우리가 천국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천년전에 있었던 부활은 역사적인 실재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 부활 사상이 만일 인간에게서 나왔다면 벌써 역사 속에 파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 한 것이요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인간 부활 사상은 인간 이성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

-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의 시원한 바닥에서 정신이 들은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장 6 시간을 못 박힌 채 계셨습니다 또 운명하시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피와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6 시간의 십자가의 고난에 살아난 사람도 없고 설혹 기절하여 정신이 깨어 났다고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군인들이 다시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내어 부활을 외쳤다. (마 28: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마 28: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정예 군대였기에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이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면 어찌 조작극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허위에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했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 했던 것입니다.

- 대체론도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사람으로 대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죽어 무덤이 오늘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어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수님 무덤에 경배하려고 해도 예수님 무덤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일어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이제 곧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금요일 날 오전 9 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오후 3 시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날 하루를 지나시고 주일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수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사실적인 것 보다 추상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끝부분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야말로 복음이 핵심이요 만일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결국 그들의 신앙이 헛된 것이 될수 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이토록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의 어려운 철학이 들어와서 복음을 완전히 말라 죽게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학문은 헬라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철학의 특징은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승된다는 것을 말하는다는 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헬라철학자가 기독교를 완전히 죽일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목회자나 성도들은 실제 사건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바울은 무슨 소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만 해도 오백이 넘으며 그 태반이 지금 살아있다고 강변합니다.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해 애써 철학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추상적이나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도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다 어떤 절망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신앙이 중요한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얼핏보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부활신앙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활신앙의 소유는 무의미한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부활을 설명하며 성경대로 라는 표현을 두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진리도 모두 다 진실한 것으로 판명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보고 자기 고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사람들이 무슨짓이든 하게 됩니다. 살기 싫으면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은 거짓이요 복음 증거자들은 거짓의 무리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죄인이 죄를 청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간들 대신에 십자가에 올라가 심판을 받아 운명하신후 무덤에 들어 가셨습니다.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 갔을 때는 그빚을 청산해야만 감옥에서 나올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죄값을 청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활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시지 못했다면 인간의 빚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 하신 것 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 하셨습니다. 이따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죄악의 사슬에서 놓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억매인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4. 부활의 위대성은 우리 삶의 새출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좌절과 절망에는 우리 개인속의 희망의 불꽃이 튀어 오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좌절과 절망에서 내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같이 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경우에도 부활의 예수님께만 나오면 소망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 장 17 절에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게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현대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약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 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가 주막집에 잠시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주막집이 좋던 좋지 않던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도 아닌 주막집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곤란하다. 우리인생은 "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느니라" 외치는 예수님이 삶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 해 집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세상을 떠납니다. 죽을 때 행복하고 아름답게 죽는 성도가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을 신앙을 가질 때 만이 가능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생적 생을 살고 다음에는 저 나라에서 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의 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생명의 단계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이 세계에서 다음세대로 넘어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부활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4.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